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裵東守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동1051
전화(967) 8133

(每月 中旬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最大의 봉사
1.最大의 협동
1.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962－5895
967－8133 사무실

生藥劑 生産管理指導力向上

分事務所別 品種選別 主導

組織活用한 系統出荷 增大에 힘써야

近年들어 播種期가 되면 藥用植物 또는 건강植物에 대한 栽培、收益등 案內廣告가 洪水같이 쏟아져 나온다.

PR時代라는 意識構造탓도 있겠지만? 이들 광고내용물들은 一般的으로 바람잡이를 前衛로한 誇張된 것이 많다고 본다.

이로 因하여 많은 栽培希望 初心者들이 右往左往하거나 혹시는 栽培試圖했다가 失敗를 보고 뒤늦게 關係要路에 진정도하고 원망도 해보지만 시원한 解決을 얻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하에 놓여 있다. 왜냐하며 廣告內容에 對한 信賴度 판단과 選擇은 自由意思에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協會산하 各級分事務所에서는 지역에 住在하는 生藥分野 유일의 機能所有 公益團體라는 名分을 살려 이들 栽培希望者 또는 기존재배者들을 규합啓導하여 時代와 季節의 호름을 利用하는 誇大선전에 말려들지 말도록 잘 引導해 주어야 할것이다.

최근들어 갑작이 선전되는 藥草나 健康植物들이 人體에 萬能效用이라고 하지만 전통성있는 在來한약에 비할수 있겠는지?

自然生으로서 좋은 한약재들이 고갈되어 가는 요즈음 藥用植物의 栽培技術開發이 끊임없이 誘導되어야 하겠지만 현저한 公共研究및 전과機關이 없는 현재로서는 確固한 行政的 뒷받침을 期待할 수 없는 處地이기 때문에 한정된 여건하에 있는 우리 分野만이라도 生産農家와 初心者들의 편에서 올바른 眼目과 최대의 所得을 올릴 수 있도록 그 指導力을 向上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其當面課題를 다음에 例示하면…

※地域別(分事務所別)로 當該年度栽培品種을 4~5種정도 잘 選別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①各級分사무소는 그 지역 面單位에 재배경험 및 지도력이 있는 中央會員을 확보 面出場所를 開設하여 生産農家들이 쉽게 活用할 수 있도록 組織망을 擴大토록 한다.

②年度初에 發行되는 協會事業計劃書 主産品種을 參考로 하여 地域特性에 맞고 收益性있는 數個品種만을 선택토록 主導한다.

③地域別 친목회 또는 생회를 活用하여 敎導的인 전파를 繼續한다.

④年中 최소한 2回(봄가을) 정도는 希望者를모아 栽培技術敎育 또는 강습회등을 實施하도록 한다.

⑤可用하다면 栽培시험포를 設置운영하도록 한다.

⑥選別이 되었다면 우량種子·種苗·種根 알선에 최선을 다 한다.

※生産品의 製品(商品化)및 저장관리를 向上시키도록 指導하여야 한다.

①該當地城을 巡回 또는 物品수집時 多年間의 經驗에 의한 지도를 적극화토록 한다.

②인근에 있는 生藥乾燥場施設을 活用토록 弘報를 계속한다.

③特히 衛生的 측면에서 추호의 하자가 없도록 철저한 管理를 主導한다.

※協會組織을 活用한 系統出荷量을 增大시켜 나가야 한다.

④各 分事務所別로 先代 20~30% 정도 支給할수있는 能力保有에 최선책을 강구한다.

②人的·物的 內實性에서 地方會員 및 生産農家들에 대한 公信力과 信賴度를 높혀 나가는데 極히 注力한다.

③系統出荷에 대한 利點(조직활성화、제값을 받을수있다는點 매점매석예방、가격폭등예방、경제질서 유지에 기여등)을 계속 홍보하면서 各級分事務所는 率先垂範한다.

④우선 최소한 月 한짝씩의 生藥材를 系統出荷하도록 努力하면서 그 實績을 주변에 擴散시켜 나가도록 한다.

：그야말로 協會組織의 死活의 基本은 各級分事務所의 活動能力에 따라 결말이 이뤄진다고 생각된다.

위에 言及한 諸要素는 複合的으로 미미하게 형성되고는 있지만 이런 狀態로는 우리들의 存在價值가 더욱 모호해질 따름이기 때문에 協會本部의 會員權益伸張에 대한 對策推進과 병행한 산하 各級分事務所長의 적극적인 活動과 推進力을 高揚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편집부〉

人事發令

〈免〉

▲충북도 제천시 사무소장＝유 환 86년5월13일부

▲부산시 서구 사무소장＝정국진 86년5월20일부

▲부산시 사하구 사무소장＝장태수 86년5월20일부

▲경남도 울산시 남부공판장장＝김종필 86년 5월20일부.

農水産部 食糧節約·食生活개선 캠페인

국내부존식량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자

▲옛부터 쌀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식량자원

는 산들바람이 스쳐지나가 등이 평퍼짐한 논둑길 모퉁이에서 잠방이 걷어부치고 물모를 심다말고 샘물맛들은 깊숙이 넣어두었던 농주 한사발을 마시고 『어! 좋다』하며 거덕 철컥하며 자전거를 끌고가는 우체부 아저씨를 불러세워 선뜻 한사발을 건네주는 인심. 흙으로 수놓은 농부의 얼굴엔 벌써 풍년을 알리는 듯 풍년가가 금방이라도 들릴듯 하다. 순식간에 받아마신 우체부 아저씨 『커 마 좋다』하며 음미하는 그 소리는 쌀로 빚은 농주에서만 느낄수 있는 독특한 맛의 소리가 아닐지!

쌀의 원산지는 대체로 아시아의 열대 또는 아열대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열대성 작물이긴 하나 현재 온대지방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에 걸쳐 널리 재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밀과 더불어 세계의 2대 작물로서 특히 아시아 지역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주식인것이다.

옛날부터 우리는 농경민족으로 쌀을 곡물중에 왕으로 꼽아 왔으며 일제 36년간의 쌀 수탈시기와 6·25동란의 뼈아픈 배고픔을 겪으면서 쌀의 존귀함은 한층 더 심해져서 우리들의 의식속 깊숙이 파고들어 『하얀쌀밥에 고기장조림』이 부의 상징이며 선망되는 식탁의 대명사로 꼽히던 때가 있었다.

이렇듯 쌀밥으로만 배를 채우는 것이 소망이었던 시기에서 그간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우리 국민의 식생활도 많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식생활 형편이 좋아진 지금이라 해도 쌀이 우리의 주식임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쌀이 아닌 다른 식품이 우리의 주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의 농업생산여건상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쌀품종은 대부분 우리 국민들의 기호에 적합한 품종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쌀품종들은 대부분이 짧고 둥글면서 아미로즈(끈기)함량이 20% 이하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호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이 개발보급되고 있는 품종들은 특히 미질이 좋은 품종들이 모두 『아끼바레』라는 품종을 [illegible] 고 있는데 이로는 소비자들의 [illegible] 라야 할 것으로 본다. [illegible] 신품종쌀이 인식이 좋지 않다 하고 그릇된 일반미(재래미)만 선호하는 경향이 일소되어야 하겠다.

도정도에 따른 쌀의 영양성분 분석

(단위：100g당)

도정도	수 분 (%)	단백질 (g)	지방질 (g)	당 질 (g)	회 분 (g)	비타민 B_1 (mg)	비타민 B_2 (mg)	소 화 율
현 미	13·3	7·6	2·3	75·7	1·6	5·4	0·8	95·2±0·9
7분도	14·1	7·3	1·3	76·6	0·7	3·1	0·5	97·7±0·3
10분도	14·4	7·11	0·97	77·1	0·5	1·7	0·4	98·4±0·2

도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소화율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나 영양소의 손실 또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쌀빛깔이 흴수록 영양가는 적은 것이다.

▲쌀의 이용형태와 가공제품 개발현황 및 전망

쌀은 밥으로서 대부분 소비되고 극히 일부가 가공되고 있다. [illegible] 95% [illegible] 4·7% [illegible] (1980년) [illegible] 17·4% [illegible] 13·2% [illegible] 우리나라의 가공제품은 기호식품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illegible] 떡류、미과류、전통식(양과、식혜등)정도이며 근래 미싯가루、이유식및 제빵용 원료로 극히 소량이 소비되고 있어 [illegible] 보조식의 개념 [illegible] 쌀의 생산량이 자급정도를 윗돌고 있는 실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쌀이용 형태에서 탈피하여 여러가지 쌀가공식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우리 국내부존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고 밀등 식량의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쌀은 전분질 원료로서 [illegible] 구조에 전분질의 끈기와 특유한 맛을 특징으로 한 우리 조상들이 이용하여 오랫동안 즐겨 먹었던 떡류、유과、미과등과 각종 음료등은 지금도 독특한 기호식품으로서 애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기호에 정착되어 있는 제품류등을 기반으로 이들을 더욱 개선 확대해 나간다면 상업성있는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의 가능성이 밝다고 하겠다.

(祝) 發展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경기도지부
지부장 오관수
포천군사무소장 이인기(본부이사)
이천군 〃 김성배
가평군 〃 안경회
평택군 〃 서성구

⊙강원도지부
지부장 송인겸(본부이사)
횡성군사무소장 신원일
철원군 〃 박영임
강릉시 〃 최이규
태백시 〃 여환돈
원성군 〃 전승표
인제군 〃 이규성
정선군 〃 최윤철
영월군 〃 심호섭
삼척군 〃 채부병
원주시 〃 황인구(본부이사)

1986년6월15일